

광주동부서 계림 7구역 이전도 물 건너가나

광주동부경찰서 청사 이전사업이 수년째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동구 재개발 구역인 계림 7구역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자(조합원)와 시공사(현대건설) 간 분양가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이전 재개발 난항 내년 3월 총회 최종 결정

지원동은 면적 비좁아 부지 못찾아 수년째 담보

서 지난 2011년과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계림 7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했으나 저조한 분양률이 예상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올 들어 구가 시행자 및 시공사의 입장을 일부 수용, 정비계획

안을 변경하면서까지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함에 따라 그간 신청사 부지를 물색해온 동부경찰도 계림7구역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경찰은 기존 청사 부지를 매각한 뒤 조합원 267명의 소유인 계림7구역 부지 5만2749㎡ 중 1만6550㎡를 매입·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구는 계림7구역 내에 공공기관이 들어설 경우 분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행·시공사의 제안에 따라 신청사 이전부지를 물색 중인 경찰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재개발사업은 그러나 시행자와 시공사

간 분양가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조합원 측은 평균 분양가가 72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현대건설 측은 평당 700만 원 선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측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현대건설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내년 3월 초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사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경찰은 대체 이전부지로 지원중학교 인근 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적이 9900㎡(2994평)에 그쳐 너무 비좁다는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윤수 동부경찰서장은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사 이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면적 4302.1㎡(약 1301평) 규모의 동부경찰서 본관(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은 지난 1982년 완공됐다. 모두 345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지만 주차 가능대수는 48대에 그치고 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2015년엔 광주로 오세요

이탈리아 트렌티노 동계U대회서 홍보활동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가 이탈리아 트렌티노에서 열리고 있는 제26회 2013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현장에서 광주U대회 홍보활동에 나섰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지난 9일부터(현지시간) 유니버시아드 메인운영센터가 위치한 트렌티노 산바대학에 홍보관(사진)을 설치하고 각국 선수단과 스포츠관계자,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2015년 광주에서 열릴 차기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적극 알리고 있다.

광주U대회 홍보관은 ‘즐거고, 공유하고 기억하자(Enjoy, Share and Remember)’를 주제로 광주U대회 비전인 EPIC(환경, 평화, 첨단기술, 문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또 광주U대회 정보와 개최도시 광주, UN공동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마스코트 누리비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 이벤트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U대회 조직위는 지난 9일 이곳 트렌티노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회의에서 2015광주유니버시아드와 내년 3월 개최하는 2014 FISU포럼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준비일정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은 “지난 7월 러시아에서 열린 카잔 하계U대회에 이어 이번 트렌티노 동계U대회에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광주의 위상과 차기대회 개최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58개국 3000여명의 대학생 스포츠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17개 종목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키 프리스타일과 아이스 하키를 제외한 9개 종목에 선수 74명을 포함한 총 108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성과부문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혁신부문 제2순환도로 소송 승소

올해의 ‘시정 베스트’

광주시는 ‘올해의 시정 베스트(BEST) 5’를 선정, 16일 발표했다.

성과부문 베스트 5에는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보육정책, 여성친화·건강가족정책 2관왕 달성, 2014년 국비 3조원 시대 개막,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내 최초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등이 꼽혔다. 창의·혁신부문 베스트 5에는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승소, 상수도 유희부지에 햇빛과

소수력 발전소 건설, 임철행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전국 최초 부도아파트에 대한 취특세 신규 세원 발굴, 전국 최초 생활 폐기물 전량 자원화 구축 등이 선정됐다.

앞서 광주시는 실·과·소에서 응모한 성과부문 26건, 창의·혁신부문 19건 등 총 45건을 접수해 실·국 주무과장 심사를 거쳐 22건을 압축한 뒤 시민, 공무원, 시의원, 출입기자 등 3217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결과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의 시정 베스트 5를 확정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시청 스케이트장 21일 개장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21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험가동 중인 야외스케이트장은 1800㎡(30m×60m) 규모로, 내년 2월13일까지 55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제공>

광주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소방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호응

광주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센터장 강용주)가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트라우마센터는 지난 13일~14일 중도 열도라에서 광주 광산소방서 구조 1팀 5개 가족과 하남 안전센터 5개 가족 등 부부 및 가족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족 캠프’를 열었다.

가족 캠프는 ▲몸이 인식하는 외상반응 치유를 위한 몸동작 치유프로그램 ▲외상에 대한 긍정적 대처

를 위한 푸드아트테라피 ▲부부관계 소통을 위한 집단 및 심층 부부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트라우마센터는 이 캠프를 위해 지난 11월18일부터 한 달간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관계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업무로 인한 외상고통에 대한 오히려 부정적 인식 나누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채희중기자 cha@kwangju.co.kr

독거노인 4070명 겨울철 맞춤형 복지

한파 대비 건강 체크

장문 보수·난방용품 지원

광주시가 혹한기를 맞아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홀로 사는 노인 4070명을 집중 관리하는 ‘겨울철 소외 노인 맞춤형 복지’에 나섰다. 이는 시민 누구나 행복해야 한다는 인권도시 광주의 시정 목표에 따른 것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배치된 방문 간호사 등 16명으로 구성된 햇살방문사업단(58명)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4070명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 대한 치

매반증조사, 투약관리 및 혈압·혈당을 검사하는 만성질환 관리를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모든 방문 간호사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시에서 지방비 부담액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시는 최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독거노인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주 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186세대에는 보일러·창틀·문풍지 보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박진표기자jakeu@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생활경력이 매우 어려운 245세대에 대해서는 겨울나기 물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독거노인을 집중 관리하는 햇살방문사업단과 함께 올해에만 직접 방문관리서비스 2만2744회, 안부전화 1만8860회 등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문대 광주시장은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며, 특히 홀로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데 지역사회의 적극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jakeu@

양동시장 193m 아케이드 설치

광주시 서구는 양동시장 건어물시장에 193m에 폭 7.2m의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감도> 국비 9억6000만원, 시비 3억2000만원, 구비 2억4000만원 등 모두 16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양동건어물시장 아케이드는 양동시장 내 건어물시장이 위치한 천변로 254번길과 양동시장 2길 등 1389㎡ 면적의 현장에 설치된다.



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달 내 아케이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4월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장’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